



2015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2015 수능 1등급 검토진’의 교재 후기

최 세 현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예과 2015학번

안녕하세요 ^^ 15학년도에 문법의 끝으로 문법 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14년에 이 책으로 열공하면서 서평을 쓰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항상 문법이라고 하면 아 그거 들어봤는데 뭐였지?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고 좋은 책을 찾던 중 문법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정말 제목 그대로 문법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세세한거 아닌가 싶어도 세세함 덕분에 헛갈리는 것도 줄고 예문들을 보면서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념도를 보며 먼저 문법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동안 문법을 다지고 14년도에 본 모의고사 중에는 문법을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마스터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시간과의 싸움인 고3동안 따로 단권화 할 필요도 없고 공금할 때마다 사전처럼 뒤져볼 수 있는 책 덕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마스터하여 문법의 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제 경우는 일단 문법개념도라는 큰 틀을 암기하고 세세한 부분들을 암기하며 헛갈리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문법의 큰 틀을 모두 암기한 후 그 개념도를 직접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려본 뒤 제가 제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문들은 암기를 더 쉽게 해주고 개념도는 큰 틀을 잡아 주기 때문에 책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개념도와 예문들이었습니다.

조 용 범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15학번

문법의 끝은 단권화하기에 최고의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수 준비 중 학원 수업과 작년 수능 대비해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법의 끝을 접하게 되었는데, 문법의 끝에서 교과과정과 2013 EBS 교재에 있는 모든 문법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법의 경우 정말 자주 빈출되는 주요 내용이 있고 알아두거나 한번쯤 접해두면 좋을만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법의 끝은 주요 문법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가 돼 있어서 주된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잘 구별할 수 있었고, 부수적 내용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문법에 대해 배경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법의 끝의 장점은 평가원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BS 교재 등 에서도 문법 기출문제는 접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모든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면 불안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법의 끝은 비문학 언어 지문과 문제 포함 7차 평가원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어서 수능 준비에 불안감을 한층 덜어주었습니다

여 혁 기 | 조선대학교 치의예과 2015학번

문법의 끝은 학생들이 문법에 접근하기 가장 좋도록 노력하여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이 학생들에게 고난인 만큼 그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만드신 느낌이 물씬 난다는 것을 공부할수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계교재나 다른 책과 비교하여 특히 좋다고 느낀 부분은 문법 구조도로써 학생들이 국어문법의 위계질서를 한눈에 머리에 넣기 좋게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문법 교재들을 보았다고 자부하지만 그중 저에게 음운론이 정리되었다라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책은 문법의 끝뿐입니다.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은 적어도 음운론파트만이라도 꼭 보기를 권합니다.

이 지 수 |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2015학번

저는 1교시 국어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잡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국어공부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국어 시험을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모의고사 일수록 뒷 과목 점수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기출문제를 풀 때면 항상 문법 부분에서 약점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문법 개념서를 충분히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법의 끝'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반수였기 때문에 국어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차곡차곡 공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 기틀이 다져진 상태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법의 끝은 교과서에 충실하면서 세세하게 인덱스가 붙여져 있다는 것과 짜임새가 구체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저는 기출문제에서 약점이 발견된 분야를 목차에서 찾아 내용 공부하는 용도로 이 책을 활용하였고, 정확하고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개념들 덕분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모르는 곳을 짚어내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첫 부분만 열심히 공부했던 다른 교재들과는 달리 구체화된 목차 구성 덕분에 끝까지 책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 풀이 후 오개념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올바른 개념을 다시 넣는데 가장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이 동 현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2015학번

〈문법의 끝〉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짚는, 선생님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교재로, 시중에 날림으로 제작되는 책들과는 달리 문법의 중심부를 겨냥해 수능에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중한 학습을 요구하기보다는 필수불가결한 내용들 위주로 '문법의 끝'을 향해 소신 있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노련한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신다면 분명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하시는 선생님의 정성입니다. 학생들의 초점에 맞춘 간결한 개념, 날카로우면서도 친절한 해설 그리고 활발한 피드백을 통한 친근한 학습은 고된 수험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재!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권태균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2015학번

2015학년도 수능대비 「문법의 끝」 과 유현주 선생님 강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2016학년도 수능대비 「문법의 끝」 을 검토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의 끝」 이 다른 문법교재들과 차별화된 부분은, 2005학년도부터의 모든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 문법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였다는 점입니다. 타 문법교재는 물론, 유형별 국어 기출문제집 중 이렇게까지 기출 문제를 많이 수록한 문제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는 제가 수능을 준비한 2014년 기준으로, 2015년에 어떠한 교재가 나왔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개념별로 중요도가 표시되어 있어서 어느 개념이 중요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문법의 끝」 의 장점입니다. 국어과의 「독서와 문법Ⅰ」 과 「독서와 문법Ⅱ」 에서 다루는 문법 개념의 양이 매우 방대한데,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면 공부할 양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문법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의 끝」 에 개념별로 표시된 중요도를 확인해서 제일 중요한 별 다섯 개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문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법의 끝」 은 국어 문법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신이 목표하던 것 이상의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은샘 |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015학번

먼저 "문법의 끝"을 통해 선생님께 문법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엔 검토진으로서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능이 바뀌게 되면서 문법의 비중이 크게 늘고, 문법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문법은 국어영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문법은 감이 아닙니다. 문법은 제대로 한번만 공부해도 다 맞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바쁜 수험기간중 방대한 문법 파트를 전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매번 그 부분이 시험문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 개념과 기출문제가 체계적으로 섞인 이 교재와 강의를 선택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법의 끝"은 개념과 기출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효율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활용할 때에는 '문법 개념 구조도'를 꼭 인지하고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도는 문법 공부에 있어 이정표라고 생각해서도 좋을 만큼 개념을 공부하기 전, 후에 공부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득한 개념을 바로 기출문제에 적용하여 평가원이 문법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출제하는 지를 꼭 알기를 바랍니다.

윤주호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2015학번

문법의 끝을 만나기 전까지 전 문법의 문자도 몰랐었습니다. 개념도 부족했고 문제 푸는 스킬도 부족해서 매번 모의고사를 치거나 문제를 풀때마다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감에 의존하고 확실하게 답을 고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또 여타 다른 책으로 공부했는데 정리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책이 문법의 끝이었습니다. 오르비를 보다가 새로운 문법책이 나와서 '일단 한번 사서 공부해보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기대감 없이 책을 구입했었으나 그런데 기대를 비웃듯 책 안에 개념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기출 문제 또한 그 파트에 맞춰서 수록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또한 해설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읽기 편하게 되어있고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그렇게 문법의 끝을 수능 끝날 때까지 정리하고 공부한 결과 수능에서 문법을 다 맞게 되었고 국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는 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법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사셔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확실하게 문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허 동 범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2015학번

저는 이 교재가 다른 문법 교재보다 좋았던 이유는 설명이 자세하면서도 수능이란 테두리 안에 있고 문제들은 모두 기출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수능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개념이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고 문법 개념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지 기억에 더 오래 남았던 것 같고 수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중요하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개념은 가볍게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하기도 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문법에 모든 개념들이 이 책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풀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부분은 책을 다시 펴서 그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리 스펙 트

언어영역이 국어영역으로 바뀐 지 어언 2016학년도 대수능이면 3년차입니다. 제일 큰 변화는 문법영역의 비중 증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언어영역이 있을 때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했습니다. 언어영역 시절, 단독 문법 문제가 2문제인 시절에는 문법영역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어 영역이 되며 그 비중이 증가했고, 이에 더불어 문법 문제는 2014수능에 비해서 2015수능이 더 정교화 되고,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대수능이 어떻게 나오는 지는 아무도 현 시점에서는 모릅니다만, 대비를 해 두는 것과 안 해두는 것의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수능은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전공과정수준의 문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고등학교 정규 과정 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하여 출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문법의 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번 응시한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분석이 깔끔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문법의 기본 개념과, 교재에 제시된 분석사항을 낱낱이 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개념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응용력 또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또한 수능을 여러 번 경험한 필자마저 '현역 시절에 이걸 배웠다면 국어 문법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남길 정도로 국어 문법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문법의 끝"을 선택하여 꼼꼼하게 책을 학습한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국어영역 중 문법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00점을 기원합니다.



2014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2014 수능 1등급 검토진’의 교재 후기

유 범 정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4학번

우선 작년 『문법의 끝』 교재를 통해 문법 공부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검토진으로서 교재를 다시 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있는 어느 문법책보다도 풍부한 설명이 담겨 있어 책을 공부하며 문법 개념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는 평가원, 교육청 출제의 여러 문제들이 실려 있어서 실전 문제풀이 감각까지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문법 이론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죠.

문법 파트 자체가 워낙 내용이 방대하며 또 어렵기도해서 저도 작년에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을 만났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다른 시중 교재가 어렵게 설명하는 문법 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었었고, 애매한 사항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문법 단권화 책으로 사용했고 이외의 문법서는 보지 않으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문법 서적을 두루 보기보다는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 보면서 저는 문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시간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6,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문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시간들을 잘 활용해 6월, 9월, 수능 시험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도 문법을 확실히 끝내 수능 1등급이 되길 바랍니다. ^^

최 종 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14학번

저는 현역시절 만년3등급 학생이었습니다. 쉬우나 어려우나 항상 변함없던 3등급의 점수가 저를 재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기출을 풀 때 전에 풀었던 기억에 의지하여 근거 찾은 연습은커녕 답만 적고 해설 읽는 방법처럼 무의미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현역으로 대학 간 친구 중에 저희 학교 특강오신 선생님이었던 유현주 선생님을 추천받아서 『문법의 끝』을 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책을 공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때부터 제가 생각해 온 것은 문법은 그냥 감이지, 그냥 그때그때 푸는 거지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을 접하고 나서 이러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풍부한 문법해설과 핵심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문법의 끝』은 2014수능을 대비하기에 딱 좋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법에 자신이 생기니 뒷부분의 독서, 문학도 자신감 있게 풀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단순히 문법지식만 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능 문법을 대비해야 하는지 척도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또, 올해 교재를 검토하며 느낀 점은 이전 교재는 자잘한 부분까지 너무 자세하게 다루신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능에서 묻고자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간추리고 중요도를 표시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작년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모두 다 중요하게 봐야하는 건가하고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A·B형으로 나누어지면서 다른 문법 기출문제 해설서에서 안 다루는 비문학 언어지문을 다룸으로써 문법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를 편성한 부분도 아주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바뀌면서 이전 문법 문제들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법이 어느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해설의 적절성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해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기본부터 심화까지 잡기에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 재 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2014학번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능에서 문법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록 각 부분별로 비중은 다를지라도 문법 문제를 다 맞히기 위해서는 잘 출제되는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교육과정상의 모든 내용을 공부해볼 수 있게 구성되었으므로 특히 처음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개념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고 이미 공부해보았던 학생일지라도 다시 한 번 모든 부분을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교재입니다.

김 종 우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2014학번

일단 제가 좋았던 점은 교재에 수능에 정말로 필요한 내용만 담겨 있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자세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문법 규정을 함께 실어 놓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능에는 보통 문법규정과 예시를 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만 달달 외운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탑재해주신 덕분에 다른 문법 기출문제를 살 필요 없이 복습만 잘 해주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 해 경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4학번

다른 교재들을 보면, 이론중심교재인 경우에는 기출문제와 문제들이 빈약하고 기출문제 중심교재인 경우에는 관련학습 내용이 빈약해서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법의 끝』은 기출과 이론, 두 가지가 모두 알차고 충실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활용할 때에는 관련 단원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가장 먼저, 그 단원에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기출문제를 풀어서 그 단원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익히고, 그 다음 관련기출문제를 쭉쭉 풀어 보면 그 단원에 대한 대비는 확실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 경 윤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14학번

시중에 잘 볼 수 없는 '문법 기출문제 모음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교재라서 국어 A형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거의 필수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강좌와 교재를 구입했는데,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가독하기에 좋아 매우 만족했습니다.

임 성 원 | 경희대학교 약과학과 2014학번

제가 문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과서나 시중의 교재들에서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무작정 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은 이러한 가려운 질문들을 속 시원히 긁어 줄 수 있는 교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단순히 외워서가 아닌 이해를 통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교재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이 책을 볼 때에는 기본 개념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처음엔 문제들을 풀되 책에 답을 체크하지 말고 틀린 문제에만 틀렸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볼 땐 책에다 문제를 풀며 오답인 선지의 오답인 근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헛갈리는 개념이나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따로 표시를 해두신 다음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 전날 내가 틀렸던 문제와 표시를 해둔 개념부분만 따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 성 원 |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2014학번

사실 문·이과 공통으로 국어라는 과목은 특히 그 중에서도 문법이라는 과목은 수험생 입장에서 참 애매합니다. 많은 공부시간을 투자해서 하자니 과연 이게 수능점수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안하자니 찝찝하고... 이런 고민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이 『문법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의 끝』은 정확하게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만을 빠짐없이 정리해놨고 또한 개념들 바로 옆에 수능에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들 수 있는 의문들(‘이 개념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얼마나?’와 같은 문제)을 해소시켜주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개념 공부하실 때 무작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머가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나와 있는 작은 귀퉁이도 빠뜨리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뒷부분에서 문제를 푸실 때에도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기출문제들이니 꼼꼼하게 수능시험이라 생각하고 시험장에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풀 것인지 생각하면서 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설들은 필요한 부분들만 또한 빠져서는 안 되는 포인트들만 딱 집어서 구성 되어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설의 사고방식대로 풀었는지를 비교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평이든 수능이든 시험장에서 문법 푸실 때는 자신감을 갖고 맘 줄이지 않고 맘 편히 풀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민 호 | 경북_대영고등학교 교사

2013년 한 해 대영고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교재를 직접 검토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내용 구성과 수준에 맞는 개념 설명이 함께 되어 있어, 학생들의 문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힘내십시오.

엄 수 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14학번

이 용 주 | 원광대학교 치의예과 2014학번